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윤창열¹ *

Function Disease Symptom And Organ Coordination of Tri-Energizer Based on the Materiality of Tri-Energizer

Yoon Chang-Yeol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Method : By investigating physiological function of tri-energizer, symptoms, and organ coordination, we obtained following conclusion. Tri-energizer is the membrane structure that surrounds the five visceral organs and six hollow organs, and filled with fluid. Tri-energizer acts as the passage for the flow of qi energy.

Result & Conclusion : Therefore, dysfunction of the tri-energizer is caused by abnormal evaporation and metabolism. Upper-energizer regulates cardiopulmonary function, middle-energizer regulates spleen and stomach functions, and lower-energizer regulates liver, kidneys, small and large intestines, and bladder functions. Such a functional specialization is possible by receiving the source of qi through the wall wrapping around the internal organs. Tri-energizer represents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hip by acting as the membrane structure supporting the five visceral organs and six hollow organs and at the same time, as the pericardium surrounding the heart.

Key words : tri-energizer, upper-energizer, middle-energizer, lower-energizer, fluid metabolism, pericardium

1. 緒 論

論者は『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및 『內經에 나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2년 10월 9일), 수정일(2012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타난 三焦有形의 根據 및 三焦의 實體』라는 논문을 통해서 三焦가 有形이고 현대해부학적으로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모든 막으로 가슴 막, 心包, 횡격막, 벽쪽복막, 내장쪽복막, 그물막 등을 포함하여 膜理之膜 및 인체 내의 모든 막을 가리킨다고 밝힌 바 있다¹⁾. 형체가 있으면 生理의인 기능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병들면 病證이 나타나게 된다. 역대로 三焦

의 有形無形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生理機能과 病證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三焦의 有形的 實體가 『내경』, 『난경』 등에 나타난 三焦의 생리기능과 병증 등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有形的 實體는 또 다시 空虛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三焦의 實體를 가지고 삼초의 생리와 병증, 장부배합 등을 설명하면 如合符節하게 맞아떨어질 뿐 만 아니라 쉽게 이해가 된다.

人体는 하나의 有機的 統一체 이다. 오장육부의 기관들은 긴밀하게 協助, 調和, 均衡을 이루어 완전한 統一체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리적인 물질이 必要한데 이를 氣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三焦는 氣를 主宰하여 인체를 有機的으로 연결시키는 중요 장기이다. 삼초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中藏經』에서는 “三焦者是 人之三元之氣也라. 號曰中清之腑니 總領五臟六腑와 營衛經絡과 內外左右上下之氣也라”²⁾고 하였다. 삼초의 기능은 이처럼 모든 氣를 主宰하여 氣의 通路가 될 뿐만 아니라 水液이 運行하는 通路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병들면 氣化失常의 병증과 水液代謝이상의 병증이 발생한다.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是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이라”하였고 『靈樞』 「本輸」에서 “三焦者是 中瀆之府也”라고 하였다. 삼초를 구성하는 모든 막 속에는 液體가 들어 있어서 이것이 氣의 導體가 되어 氣의 通路가 되며 또한 水液의 通路가 된다.

이처럼 有形的 三焦를 통해 三焦의 生理機能과 病證 및 臟腑配合등을 살펴보면 一以貫之하여 三焦를 이해할 수가 있다.

2. 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1) 三焦는 氣가 運行하는 通路가 되어 主持諸氣한다.

역대로 三焦의 有形無形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生理機能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삼초의 대표적인 기능은 主持諸氣作用과 原氣之別使가 된다는 것이다. 『難經』 「38難」에서 “所以府有六者是 謂三焦也니 有原氣之別焉이오 主持諸氣라” 하였고 31難에서 “三焦者是...氣之所終始也라” 하였으며 66難에서 “三焦者是 原氣之別使也니 主通行三氣 하야 經歷於五藏六府”라 하였다. 이는 三焦가 人体의 모든 氣가 升降出入 하는 通路가 된다는 것이다. 한의학적으로 心肺之氣는 下降하고 肝腎之氣는 上升하며 脾氣는 上升하고 胃氣는 下降하며 또 清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하는데 역시 三焦로써 通路를 삼는 것이다. 특히 元氣는 腎에서 發源해서 三焦의 氣道를 통해서 오장육부에 布散되고 全身에 充滿되어 각 장부의 기능활동을 激發시키고 推動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三焦의 原氣가 腎間의 命門에서 起始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삼초의 뿌리는 신장사이의 명문에서 시작하니 사람 생명의 근원과 심이경맥의 근본이 다 여기에 메어있다. 코를 통해 흡입한 하늘의 양기가 폐를 지나고 심장을 지나면서 心火를 이끌어서 척추좌우의 근육을 따라서 腎系로 들어가고 명문에 이르러 방광의 물을 훈증하여 氣化를 시켜 올라가게 하면 삼초가 상화를 주재하여 腎中原氣의 別使가 되니 이것이 심이경맥의 영기와 위기의 운행에 모두 삼초가 작용하게 되는 이유이다.(三焦之根은 起於腎間命門하니 人之生命之原과 十二經之根本이 皆系乎此라 由鼻吸入之天陽이 過肺歷心하야 引心火하고 循膈筋하야 入腎系하고 至命門하야 蒸膀胱之水하야 化氣上騰하면 三焦主持相火하야 爲腎中原氣之別使하니 是十二經之營衛流行이 皆三焦之所使也라”

腎間의 命門에서 動하는 氣를 臍下腎間動氣라고 하는데 인체의 生命活動을 유지하는 뿌리가 되는 氣이며 十二經脈의 根本이 되는 氣이다. 이를 『난경』 8難에서는 “謂腎間動氣也니 此五藏六腑之本이며 十二經脈之根이며 呼吸之門이며 三焦之原이라” 하였다.

腎間의 命門은 原氣를 生하는 根蒂로 天陽과 心

1)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42-143.

2) 蔡陸仙. 中國醫學匯海(八). 서울. 成輔社. 1978. p.28.

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6.

火가 下降하여 火交於水하여 腎精 또는 膀胱水를 蒸氣化시켜 生命活動을 촉진하는 原氣를 生하며 三焦는 이를 운반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삼초는 氣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三焦無形說의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였다.

해부학 책을 보면 가슴막안(흉막강 pleural cavity)에는 장액이 있어 가슴막 표면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폐 운동 시의 마찰을 방지한다 하였고, 심장막안(심막강 pericardial cavity)에는 심막액(pericardial fluid)이 있어 심장박동 때의 마찰을 극소화 시키고 심장의 위치를 유지시킨다고 하였다.

또 복막안(복막강 peritoneal cavity)에도 복막액(peritoneal fluid)이 있어 이에 의해 원활하게 됨으로써 내장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였으며 창자간막(mesentery)의 복막 사이의 결합조직에는 그 내장에 분포하는 혈관, 림프관, 신경과 림프절 및 지방이 있다고 하였다.⁴⁾ 즉 삼초를 구성하는 장부를 싸는 모든 막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물은 기를 전달하는 導體가 된다. 서양의학에서는 여러 막이 장기를 고정시키고 마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지만 한의학적 입장에서 氣가 升降出入하는 통로가 되어 기화의 장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三焦는 原氣를 각 장부 마다 분별해서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니 이것을 原氣之別使 라고 하는 것이다.

2) 三焦는 水液이 運行하는 通路가 된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는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 이라 하였다. 이를 대부분의 의가들은 삼초는 氣化作用이 있고 이 氣化作用에 의해 방광에 저장된 소변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당중해는 三焦에 해당하는 網油가 방광과 연결되어 水가 이 網油를 통해 膀胱으로 滲入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두 해석은 모두 下焦에 국한되는데 三焦라고 전체를 하였으니 “三焦의 기능은

물이 흐르는 도랑과 같은 기관이니 물길이 이곳을 지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靈樞』「本輸」에서 “三焦者는 中瀆之府也니 水道出焉 이라” 한 것과 내용이 일치하게 된다. 中瀆之府라는 것은 중간에 물이 흐르는 도랑과 같은 기관이라는 뜻으로만 해석이 된다. 여기서는 氣化의 개념을 넣을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초에 해당하는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막 속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三焦는 水液이 升降出入하는 通路가 되는 것이다. 三焦는 氣가 運行하는 通路가 되고 또한 水液이 運行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은 水能載氣하여 물이 氣를 전달하는 導體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 水와 氣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 당중해는 『血證論』「陰陽水火氣血論」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⁵⁾

“水는 氣로 변화되고 火는 血로 변화되니 어찌서 水가 氣로 변화 된다고 말하는가? 氣가 물건에 부착되면 다시 물로 돌아가니 이것이 명확한 증거이다. 사람의 氣는 배꼽아래 단전 기혈의 사이에서 생겨나니 배꼽아래는 신장과 방광의 水가 들어가 머무르는 장소이다. 이 水는 저절로 기화해서 氣가 되지 않고 또 코로 흡입한 天陽이 肺管을 따라 내려가 心火를 이끌어서 배꼽 아래로 들어가 그 水를 蒸化하여 氣化를 시켜 氣를 만드는 것에 의지하니 주역에서 坎卦 一陽이 水中에서 생겨 氣를 생하는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水即化氣하고 火即化血하니 何以言水即化氣哉아 氣著於物하면 復還爲水하니 是明驗也라 蓋人身之氣는 生於臍下丹田氣海之中하니 臍下者는 腎與膀胱水所歸宿之地也라 此水不自化爲氣하고 又賴鼻間吸入天陽이 從肺管引心火하야 下入於臍之下하야 蒸其水하야 使化爲氣니 如易之坎卦一陽이 生於水中而爲生氣之根이라.)”

이를 보면 水와 氣는 水能化氣하고 氣化爲水하여 일체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협조관계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三焦는 氣와 水液이 運行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氣化의 장소가 되며 通調水道하는 기능도 있게 되는 것이다.

4) 대한해부학회. 국소해부학.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2005. p.300, 313, 382, 385.

5)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p.1.

3) 上中下 三焦의 기능

『靈樞』「營衛生會」에서 “上焦는 出于胃上口하여 并咽以上하여 貫膈而布胸中하고 走腋하여 循太陰之分而行하여 還至陽明하고 上至舌하야 下足陽明하야 常與營으로 俱行于陽二十五度하고 行于陰亦二十五度하야 一周也라 故五十度而復大會于手太陰矣라.” 하였는데 이는 上焦에서 出한 衛氣의 운행을 설명한 것이다. 또 『靈樞』「決氣」에서 “上焦開發하야 宣五穀味하야 熏膚充身澤毛가 若霧露之漑하니 是謂氣라”하였고 『靈樞』「癰疽」에서 “上焦出氣하야 以溫分肉而養骨節하며 通脈理라” 하였는데 이는 上焦가 布散陽氣하여 溫煦肌膚하는 作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靈樞』「營衛生會」에서 “泌糟粕하고 蒸津液하야 化其精微하야 上注于肺脈할새 乃化而爲血이라” 하고 『靈樞』「決氣」에서 “中焦受氣取汁하야 變化而赤을 是謂血이라” 하였으며 『難經』「31難」에서 “中焦者……主腐熟水穀이라” 하였는데 이는 中焦가 腐熟水穀하고 化生營血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下焦者는 別回腸하야 注于膀胱而滲入焉이라 故水穀者는 常并居于胃中이라가 成糟粕하고 而俱下于大腸하야 而成下焦하고 滲而俱下하야 濟別汁하고 循下焦而滲入膀胱焉이라” 하였고 『難經』「31難」에서 “下焦者……主分別清濁하야 主出而不納하야 以傳導也라” 하였는데 이는 下焦가 分別清濁하고 排泄二便하는 作用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上,中,下焦의 위치는 『靈樞』「營衛生會」와 『難經』「31難」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황격막 위는 上焦, 황격막에서 배꼽까지는 中焦, 배꼽아래는 下焦로 구분

한다. 이러한 위치 구분과 三焦의 기능을 결합하여 현대의 많은 의가들은 上,中,下焦의 생리기능이 실제상으로는 上,中,下焦 中에 위치하고 있는 장부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즉 上焦는 心,肺의 기능이고, 中焦는 脾胃의 기능이며, 下焦는 肝, 腎, 大腸, 小腸과 膀胱의 기능을 개괄한 것이라고 여긴다.⁶⁾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부의 기능 외에 다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上,中,下 三焦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⁷⁾ 이는 『靈樞』「營衛生會」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라는 말과 『難經』「31難」의 “上焦主納, 中焦主腐熟水穀, 下焦主出”이라는 표현의 방조 속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은 三焦는 有名而無形하다는 전통 관념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필자도 『내경』과 『난경』 속에 있는 三焦의 기능은 실제로 三焦가 위치한 장부의 각종 생리기능을 概括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만 인식한다면 三焦의 存在는 사라지고 無形說이 고착화 된다. 여기에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 三焦는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막이며 여기에는 根本原氣가 흐르면서 分行諸經한다. 오장육부는 命門原氣의 공급을 받아야만 자신의 생리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三焦의 형태는 오장육부와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三焦原氣의 공급을 받아 기능을 발휘한 장부의 기능은 셋으로 概括하여 上,中,下焦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三焦는 天地人 三才를 상징하며 三元之氣로 區分되어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三焦의 기능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곡		기능		성상	장부기능
上焦	主納	受納水穀	主氣	布散陽氣, 溫煦肌膚	如霧	心肺
中焦	主化	腐熟水穀	主食	蒸化精微 化生營血	如漚	脾胃
下焦	主出	傳導糟粕	主便	分別清濁 排泄二便	如瀆	肝,腎,大腸,小腸,膀胱

3. 有形으로 살펴 본 三焦의 病證

三焦의 기능은 原氣의 別使가 되어 主持諸氣하고 通調水道하여 水液을 運行하는 것을 主함으로 삼초의 병증은 氣化의 失常과 水液代謝의 이상으로 나타나며 삼초가 위치한 부위의 병증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氣와 水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水液의 윤행은 氣의 升降出入에 의지하고 津液이 升降出入하는 通路는 반드시 氣의 통로가 됨으로 이 둘의 병은 흔히 함께 나타날 수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 “三焦病者는 腹脹氣滿호대 小腹尤堅하며 不得小便하야 窘急하며 溢則爲水하고 留卽爲脹이라”하였다. 腹은 복막이 있는 곳으로 三焦의 부위이고 氣滿은 氣化失常이며 不得小便窘急은 三焦의 氣化作用에 이상이 생겨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고 浮腫과 脹滿은 水液代謝의 이상으로 三焦와 관련된 部位인 腠理 또는 복부에 水液이 정체된 것이다.

『靈樞』「脹論」에서 “三焦脹者는 氣滿于皮膚中하야 輕輕然而不堅이라”하였다. 이것은 三焦가 氣滯不行하여 생긴 병으로 腹部가 脹滿하면서 堅硬하지 하고 진신에 虛腫이 생기는 것이다. 『醫醇賸義』에서는 三焦脹에 通皮飲을 쓴다 했고 처방 속에 廣皮, 靑皮, 冬瓜皮, 茯苓皮등의 껍질 약을 많이 썼는데⁶⁾ 이를 통해서도 三焦가 장부를 싸는 막이며 이곳이 氣와 水液의 통로가 됨을 엿볼 수 있다.

『靈樞』「四時氣」에서 “小腹痛腫하며 不得小便하면 邪在三焦約이라” 하였다. 이는 邪熱이 三焦를 拘束하여 氣化作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서 小便不利하며 小腹이 아프고 부은 것이다.

『素問』「咳論」에서 “三焦咳狀은 咳而腹滿하며 不欲食飲이라” 하였다. 이는 久咳가 낫지 않아 三焦의 氣化作用이不利해져서 생긴 병으로 三焦의 部位인 복부에 병증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볼 때 三焦의 病機는 氣化失常과 決瀆失

常으로 요약된다. 氣化失常은 外邪의 侵襲이나 臟腑病變의 영향으로 발생하여 氣의 升降出入에 이상을 초래하고 氣機의 이상은 水液代謝의 失常을 초래하여 水液이 停聚되면 腹脹, 小便不利, 腹瀉, 水腫등 三焦와 관련된 기능과 部位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4. 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장부배합

『素問』「血氣形志篇」에서 “少陽與心主爲表裡”라 하였고 手少陽三焦經과 手厥陰心包經은 서로 絡屬하면서 臟腑表裡관계를 이루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삼초는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막이며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다. 즉 三焦는 五臟六腑之外衛가 되고 心包는 少陰君主之外衛가 되는 것이다. 광의적으로 살펴보면 心包도 三焦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둘은 五行에서 모두 相火를 주장하고 형태적으로 모두 外部를 싸는 막이 됨으로 心을 代行하는 心包를 별도로 드러낼 때 자연스럽게 三焦와 相하게되어 包絡은 相火之臟이 되고 三焦는 相火之腑가 되는 것이다.

『靈樞』「本藏」에서 “腎合三焦膀胱”이라 하였다. 다른 오장은 하나의 腑와 相合하지만 腎은 三焦와 膀胱 2개의 腑와 相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腎이 생명의 뿌리가 되어 陰陽水火를 동시에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腎의 主水하는 기능과 相合하는 腑는 膀胱이 되고 腎의 主火하는 기능과 相合하는 腑는 三焦가 되며 腎의 主火기능을 특별히 命門이라 부르므로 命門과 三焦가 相合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靈樞』「本輸」에서 “三焦者는 中瀆之府也니 水道出焉이오 屬膀胱하니 是孤之府也라” 하였다. 三焦는 막으로 이 속에는 도랑처럼 물이 흐르고 있어 水道出焉이라 한 것이고 膀胱은 水液을 藏하는 腑라서 三焦와 유사성이 있으며 三焦의 氣化作用에 의해 소변을 배출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광에 속한다고 한 것이다. 三焦를 孤府라고 한 이유는 배합되는 臟이 없다는 뜻으로 心包는 正臟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 사료된다.

6) 羅昌洙 外18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p.293.

7) 孫廣仁 主編, 中醫藏象生理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2. p.171.

8) 費伯雄, 醫醇賸義.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2. p.145.

參考文獻

<논문>

1.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42-143.

<단행본>

1. 羅昌洙 外18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p.293.
2. 唐宗海. 血證論. 上海人民出版社. 1977. p1.
3. 대한해부학회. 국소해부학.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2005. p.300, 313, 382, 385.
4. 費伯雄. 醫醇臈義.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2. p.145.
5.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6.
6. 張世賢. 圖注難經脈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0.
7. 孫廣仁 主編. 中醫藏象生理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2. p.171.
8.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4.
9. 蔡陸仙. 中國醫學匯海(八). 서울. 成輔社. 1978. p.28.

